

#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에 관한 연구: KISTI의 창조경제타운을 중심으로

정도범\* · 황영현\* · 송용준\*\*\* · 김성진\*\*\*\*

## 요약

신산업·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업 생태계

## I. 서론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시장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정도범 외, 2015). 해외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승환 외, 2013). 특히,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은 외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모델로써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승환 외, 2013; Chesbrough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등장하였다. 영국의 John Howkins가 2001년에 발간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에 따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창업→

\* 정도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혁신실 선임연구원, UST 겸임교수, Email: dbchung@kisti.re.kr

\*\* 황영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단장, Email: younghunh@kisti.re.kr

\*\*\* 송용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혁신실 실장, Email: bmdesigner@kisti.re.kr (교신저자)

\*\*\*\* 김성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혁신실 선임연구원, Email: sungjin.kim@kisti.re.kr

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성장,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재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백승화·정도범, 2014).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여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창조경제타운이 부각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된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화나 창업을 위해 나 홀로(stand alone) 모든 활동을 수행하여 생계형 창업이 주로 성장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김기찬 외, 2015; 이승환 외, 2015). 개방형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의미하는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종합 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멘토)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전·구체화하고 다양한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사업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쉽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일부 언급되고 있다(정도범 외, 2015). 본 연구는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조사·분석하여 창조경제타운의 역할 및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써 차별화된 특성과 주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II.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동향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승환 외, 2013; 최병삼 외, 2014). 따라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창업으로 연결하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은 필수이며, 해외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용·육성함으로써 혁신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정도범 외, 2015).

먼저,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http://www.kickstarter.com))는 아이디어와 자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하면 회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로 디자인, 패션, 영화, 게임, 출판, 음악 등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해진 기한 내 목표액을 달성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한 회원들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킥스타터는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스마트 워치인 '페블(Pebble)'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자금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킥스타터와 달리, 퀴키([www.quirky.com](http://www.quirky.com))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소셜 제품 개발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회원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와 코멘트 등을 작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는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퀴키는 일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화 과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 제안 시 99달러의 비용을 받았지만, 2010년에는 10달러, 최근에는 무료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개발되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

한 회원들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퀴키의 대표 사례는 다양한 크기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도록 멀티탭이 자유롭게 휘어지는 ‘피봇 파워(Pivot Power)’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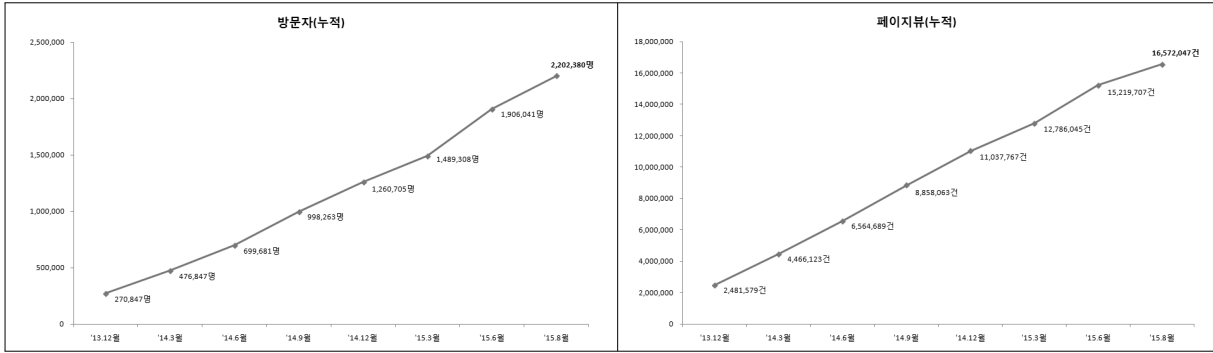
Y 콤비네이터([www.ycombinator.com](http://www.ycombinator.com))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창업 역량을 육성해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매년 3개월 과정의 육성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커뮤니티(dinners), 오피스 아워(office hours)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 경험과 노하우, 고민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 및 구체화할 수 있고, 3개월의 육성 과정 이후에는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들에게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하여 투자를 받게 된다. 아이디어와 자금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비슷하지만, 시드 자금(seed funding)을 제공하고 자문,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큰 차별점이 있다. 현재 Y 콤비네이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또한 이노센티브([www.innocentive.com](http://www.innocentive.com))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기업이 문제를 의뢰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뢰한 기업은 그 중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자(problem solver)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된다.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퀴키와 비슷하지만, 퀴키가 주로 제품(소비재)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노센티브는 비즈니스, 사회, 정책, 과학, 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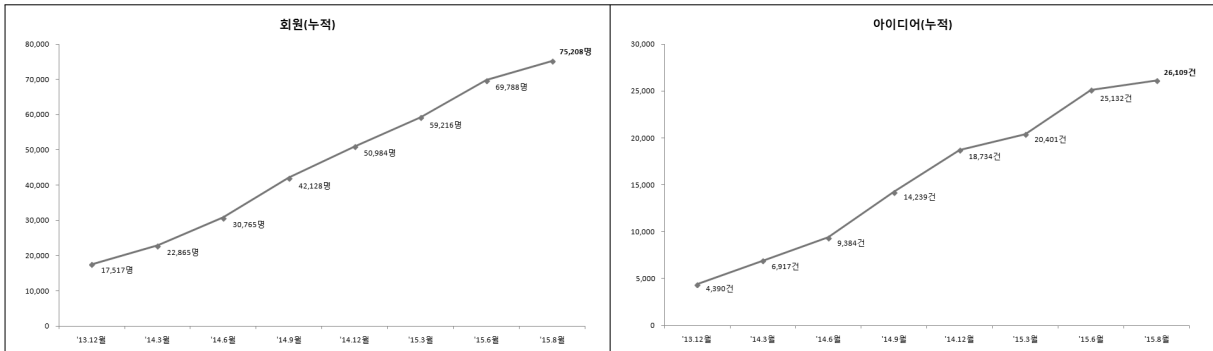
이 외에도 캐글([www.kaggle.com](http://www.kaggle.com))은 빅데이터(big data)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데이터 과학자들(data scientists)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나인시그마([www.ninesigma.com](http://www.ninesigma.com)) 역시 문제해결이나 기술 혁신 등을 위해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를 중개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제조장비와 작업 공간을 저렴한 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테크숍([www.techshop.ws](http://www.techshop.ws)) 등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해외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KISTI의 창조경제타운 사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http://www.creativekorea.or.kr))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축·개발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2013년 9월 30일 처음 오픈되었다. 2013년 초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기획되었으며, 국민의 창의적인 상상력·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지원하는 ‘종합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이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가치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mentoring)을 수행하며,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창조경제 지원 사업들에 연계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창의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8월말까지 2,202,380만 명이 창조경제타운에 방문하였고, 16,572,047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였다. 또한 75,20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6,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총 3,920건의 아이디어가 선발되어 다양한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약 200억 원 규모)되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그림 1) 창조경제타운 누적 방문자 및 페이지뷰



(그림 2) 창조경제타운 누적 회원 및 아이디어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화·창업 등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혁신형 창업이 성장하기도 힘들다(이승환 외, 2013; 정도범 외, 2015; Blank, 2013). 따라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사업화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정도범 외, 2014). 특히, 창조경제타운은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것인지,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평가받길 원하며, 창조경제타운은 그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판단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주도의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달리,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사업화·창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써 창조경제타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분야도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정도범 외, 2015).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경우에는 제품(소비재)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를 초점을 맞춰 아이디어를 제안받기도 하고, 아이디어 제안자의 경력이나 역량 등을 평가하기도 한다. 즉,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자를 선별 지원하는 다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이나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흡한 아이디어라도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화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화나 창업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창조경제타운은 전문가 멘토링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쿼키가 직접 제작, Y 콤비네이터가 벤처캐피탈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창조경제타운은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타운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수익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표 1> 창조경제타운의 특성

구분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설립 주체	민간 주도	정부 주도
지원 대상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자	모든 아이디어 제안자
지원 분야	소비재 등 특정한 분야	모든 분야
운영 방향	우수한 아이디어의 선별 지원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구체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직접 제작 및 벤처캐피탈(VC) 연계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처/민간 연계
수익 분배	아이디어 제안자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플랫폼 참여자	아이디어 제안자
핵심 가치	수익 창출	창의도전 문화 확산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부처/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싶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 실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등에게 다방면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정도범 외, 2015).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의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들의 니즈를 분석하여 개선·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IV. 창조경제타운의 주요 프로세스

창조경제타운의 주요 프로세스는 크게 ① 아이디어 발상, ② 아이디어 제안, ③ 아이디어 육성, ④ 아이디어 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 창조경제타운 프로세스

### 1) ‘아이디어 발상’ 단계

창조경제타운은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써 현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창조경제타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기찬 외(2015)는 ‘와서 머물게 하기’를 플랫폼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와서 머물고 싶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타운은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재방문을 촉진하고 있다.

즉,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아직 아이디어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신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볼 수 있으며, 이미 아이디어를 제안한 회원들도 각종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퀴즈, 테스트 등을 제공하거나 최신 트렌드 및 이슈를 전달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이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2) ‘아이디어 제안’ 단계

창조경제타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도 매우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처음 아이디어 제안 시 아이디어를 멘토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 많은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의 제안 목적에 따라 단순 평가와 사업화 멘토링으로 구분되어 회원들이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받을 것인지, 멘토링을 신청하여 사업화 멘토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창업 교육을 목적으로 창조경제타운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은 단순 평가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이디어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안’ 단계에서는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제안뿐만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를 협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 직접 아이디어 공모전을 신청·접수하거나 외부기관으로 연결되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신청·접수할 수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창조경제타운은 이노센티브, 캐글 등의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비슷하게, 개인이나 기업 등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최적의 대안)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종합 창구로써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디어를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 3) ‘아이디어 육성’ 단계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가장 차별화된 창조경제타운의 핵심적인 역할이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제안된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되고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 가능하도록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를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 창

업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권리화, 자금 연계,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고, 미흡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정도범 외, 2015).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육성’ 단계에서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멘티 간의 온라인 멘토링을 지원한다. 온라인 멘토링은 최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로 연결된다. 또한 멘토링을 자랑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멘토와 멘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여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통해 멘티는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화·창업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멘토 또한 높은 수준의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핵심 가치인 창의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4)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추천·선발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된다.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자금/투자 및 유통판로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팅, 글로벌 진출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단지 상상 속에 머물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실현된다. 온라인으로는 사업화 지원 사업, 기관, 행사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KISTI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산업시장 정보 분석, 기술가치 평가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연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창조경제타운의 특성과 주요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나 홀로 창업이 아닌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형 창업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타운은 다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달리,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복지형 아이디어 플랫폼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화·창업 전반에 걸쳐 국민과 부처/민간 모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이도형, 2015),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발상에서 제안, 육성,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연계를 보다 강화한다면 창조경제타운의 핵심 가치인 창의도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비교·분석을 창조경제타운의 특성을 제

시하고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설명하였지만, 창조경제타운의 효과를 실증 분석(empirical study)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타운이 구축된 이후 우리나라의 사업화 창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온라인 멘토링의 효과, 창조경제타운의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델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찬, 송창석, 임일 (2015),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성안북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 박성민 (2013), 「혁신의 요람, 아이디어 플랫폼」, SERI 경영 노트 (제186호), 삼성경제연구소.
- 백승희, 정도범 (2014),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R&D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2014년 STEPI Fellowship(국문) (기타연구 2014-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도형 (2015),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교류·협업 공간 활성화」, 연구보고 2015-0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승환, 김창욱, 박성민, 고덕기 (2013),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CEO Information (제909호), 삼성경제연구소.
- 정도범, 김성진, 송용준, 황영현 (2015),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현황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타운의 확산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4): 37-44.
- 정도범, 박성욱, 김은진 (2014),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3.0 성과 창출 방안”, 2014년도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 최병삼, 김창욱, 조원영 (2014),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아이디어 사업화, 창조경제타운에서 길을 찾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 Blank, Steve (2013), “Why the Lean Start-Up Changes Everything”, *Harvard Business Review*, May 2013.
- Chesbrough, H., Vanhaverbeke, W. and West, J. (2006), *Open Innovation: Researching a New Paradigm*, Oxford University Press.
- Howkins, John (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Global.
- 나인시그마(NineSigma), <http://www.ninesigma.com>
- 이노센티브(InnoCentive), <http://www.innocentive.com>
- 창조경제타운(Creative Economy Town), <http://www.creativekorea.or.kr>
- 캐글(Kaggle), <http://www.kaggle.com>
- 퀴키(Quirky), <http://www.quirky.com>
- 킵스타터(KickStarter), <http://www.kickstarter.com>
- 테크숍(TechShop), <http://www.techshop.ws>
-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 <http://www.ycombinator.com>